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이 은 희[†]
건양대학교

공 수 자
조선간호대학

이 정 숙
전남대학교

본 연구는 중학생 311명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의사소통, 부모감독), 학교(교사에착, 학교애착),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요인(폭력매체 노출)이 분노조절과 비행친구의 접촉을 통하여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공변량 구조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가정환경이 분노조절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리사회적 학교환경이 분노조절과 비행친구의 접촉을 통하여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의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요인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비행친구의 접촉을 통하여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가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적 개입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의사소통, 부모감독, 교사에착, 학교애착, 폭력매체 노출, 분노조절, 비행친구접촉, 학교폭력

이은희는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공수자는 조선간호대학 간호학과, 이정숙은 전남대학교 간호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이 은 희, (320-711) 충남 논산시 내동 26,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E-mail : ehlee@hanmail.net

최근 청소년 범죄는 조직폭력화, 집단화, 연소화, 누범화 되어가고 있다(임순홍, 2000)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그 발생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폭력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는 학교의 존립 자체와 정상적인 교육을 위협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Noguera, 1995; 임영식, 1998에서 재인용). 게다가 청소년 폭력은 이제 교육현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개념은 바라보는 관점과 적용범위에 따라, 대상의 주체와 객체에 따라 교내폭력, 학교주변폭력, 또래폭력, 청소년폭력, 학생폭력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쓰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Olweus(1993)의 정의에 기초하여 학교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폭력행위로서 학생이 개인이나 또래집단에 의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체적, 물리적 폭력은 물론 집단따돌림, 욕설, 협박 등의 심리적, 언어적 폭력행위에 노출되는 경우로 본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1)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남학생의 89.1%, 여학생의 93.7%가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의 15.4%, 여학생의 24.2%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4.2%의 중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최근 연구(박경아, 2003)는 중·고생의 57%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김준호, 1998)와 학교폭력 피해 초·중·고생이 5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박경숙, 손희권, 송혜정, 1998)에 비하여 피해경험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원문제를 시사한다. 특히 이신옥(2003)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중 54.9%가 어떤 유형의 학교폭력이든지 행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학교폭력을 행사

하는 악순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은희, 강은희, 2003).

이처럼 학교폭력은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혼재해 있으며 이러한 학교폭력경험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에게까지도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 같은 여러 가지 적응의 문제(Kaltiala-Heino, Rimpela, Rantanen, & Rimpela, 2000)와, 학교에서의 학습과 집중의 곤란, 학교적응 곤란, 친밀한 관계의 어려움, 높은 스트레스 수준(Turkel & Eth, 1990; Sharp & Thompson, 1992; Gilmartin, 1987; Sharp, 1995; Karatzias, Power & Swanson, 2002에서 재인용)과 같은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Olweus, 1994).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의 악순환이나 확대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이 요청된다. 그런데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적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유발 요인들 중 개인적인 특성과 학교, 가정, 친구, 폭력매체 노출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인 요인들이 주요한 특성이다(임영식, 1998). 폭력에 대한 개인특성적 접근은 청소년들의 폭력행동을 나타내는 개인적 심리적 특성이 학교폭력을 유발한다고 보는 이론으로서 폭력행동과 관련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분노와 공격성(이시형, 1997;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자기조절능력의 부족(이시형, 1997), 충동적인 성격(이미경, 1995) 등이 발견되었다.

폭력에 대한 사회환경적 접근은 청소년 폭력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맥락과 환경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학교폭력 문제가

청소년 개인 자신만의 문제보다는 가정, 사회, 문화적 영향과 맞물려 발생한다고 본다(임순홍, 2000).

학교폭력에 대한 개인특성적 접근은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환경적 맥락을 고려에 넣지 않아서 특정한 지역사회와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더 폭력적인지, 왜 특정한 가정배경의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더 공격적인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에, 사회환경적 접근은 폭력행동과 관련된 개인차와 폭력행동이 발견되기까지의 개인 내부적 심리 기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설명과 이해 및 개입을 위해서는 이 두 접근을 발전적으로 절충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청된다(조성호, 2000).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은 폭력행동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에는 적합하지만 폭력행동을 예방하고 감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감소하는 요인으로서의 보호요인은 부정적 결과가 예측되는 위기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정상발달을 이끄는 요인으로서(김정만, 2001),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립변인인 동시에 위험요인과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능동적인 개념이다(김선희, 2000).

보호요인은 개인특성적 내적요인과 가족, 학교, 지역사회 환경의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특성적 보호요인은 한 개인이 능력이 있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의 전달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제공한다. 가족보호요인은 학업에 대한 높은 기대나 학교 밖에서의 행동에 대한 가치관과 도덕성에 대한 가족 구성원 중 적어도 한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애착관계를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교 행정가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의 적응유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광범위한 역할을 해야된다(Catalano, Loeber & McKinney, 1999; 박경아, 2003에서 재인용).

그러나 학교폭력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실태조사 수준의 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인과관계의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또 인과관계의 분석을 실시한 연구들도 대개는 한두 가지의 요인에 국한하여 학교폭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임영식, 1998). 사회적 환경요인들과 학교폭력 경험 간의 인과관계의 분석을 실시한 김명자(2002)의 연구에서는 각 개별적인 심리적 변인들이(예, 의사소통, 부모감독 등) 어떻게 학교폭력을 유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런데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심리적 변인들을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부합되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별로 종합한 통합적인 학교폭력 모형의 설정과 검증이 요청된다.

이제 학교폭력은 어떤 특정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여 풀어야 할 공동적인 문제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접근과 개인특성적 접근, 보호요인과 유발요인을 통합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사회환경적인 요인들이 개인특성과 결합하여 어떻게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하고 억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가정의 심리사회적 보호환경요인으로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을, 학교의 심리사회적 보호환경요인으로서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애착을, 지역사회의 심리사회적 유발환경요인으로서 폭력 매체에 대한 노출을 설정하여 이러한 사회환경적인 요인들이 개인특성인 분노조절력과 친구관계를 통하여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억제하거나

유발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가정, 학교, 지역사회 심리사회 환경들이 어떻게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학교폭력 발생의 심리적인 기제를 밝히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상담적 개입과 예방대책의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심리사회적 가정환경 요인, 분노조절, 비행친구와의 접촉, 학교폭력 가해행동간의 관계

Wilkinson(1974; 변보기, 강석기, 2002에서 재인용)은 청소년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정환경을 꼽았으며, 특히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결혼 등의 구조적 측면과 부모와 자녀간의 심리적 거리, 양육태도, 의사소통 등의 기능적 측면을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그런데 부모의 물리적 존재와 관련된 가족구조의 결혼보다는 부모의 심리적 기능과 관련된 자녀와의 관계, 양육태도 등이 청소년 폭력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나타냈다(김준호, 1995).

사회통제 관점(social control theory)은 Hirschi에 의해서 체계화된 이론으로서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가 약해졌거나 끊어졌을 때 비행행위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한준상, 1998). 즉 이 관점에서는 비행이 사회적 유대에 의해서 억제된다고 가정한다. 김두섭과 민수홍(1996)은 청소년들의 중요한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가 비행의 억제요인임을 발견하였다.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에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간의 공통이해를 도모하는 상호반향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

소춘, 2000). 김준호(1995)는 부모-자녀간의 감정적인 유대인 의사소통이 청소년 비행과 관련됨을 시사하였으며, 민하영(1992)은 부모와 자녀들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비행이 관여할 가능성이 감소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모감독은 자녀의 효율적인 행동적 규제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써 자녀가 있는 장소, 하는 활동, 함께 하는 친구에 대한 부모의 지식을 의미한다(Stattin & Kerr, 2000; 김희화, 2003에서 재인용). 감독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활동이나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친구사이의 갈등, 혹은 집밖에서의 행동 등에 대해 알기가 어렵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부모의 감독 소홀이 청소년 폭력을 예측한다는 연구들(Farrington & Loeber, 2000; Gorman-Smith, Tolan & Zelli, 1996; Thornberry, Huizinga & Loeber, 1995; 김명자, 2002에서 재인용)은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임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가정환경 요인 중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폭력의 억제와 관련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Hirschi(1969; 김준호, 1996에서 재인용)도 부모의 감독이나 대화가 청소년들의 비행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 변인의 하위요인으로서 설정하였다.

청소년기의 표출되는 많은 종류의 문제행동들은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는 환경적 스트레스에 의한 분노나 충동과 같은 정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그 결과로서 공격성과 같은 행동으로 발생된다고 본다(Szurek, 1942; Quay, 1964; 변보기, 강석기, 2002에서 재인용). 학교폭력은 자기 통제력의 결여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의 의미

와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생각없이 충동적으로 저질러지는 경향성이 높은 행동으로서 대체로 자신의 충동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해서 일어난다. 순간적인 충동에 휩쓸려 분노가 표출되고, 힘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도 반성하거나 고민하지 않으며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공격적 충동을 그대로 표출시키게 된다고 본다(이시형, 1997).

이신옥(2003)은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학교폭력 행동과는 정적인 상관은 있지만 학교폭력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내적 통제력이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명자(2002)는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부모의 감독이 분노조절력을 향상시켜서 간접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 가정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은 직접 학교폭력행동을 억제하기 보다는 분노조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학교폭력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자녀가 건전한 가치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감독하는 청소년의 보호적인 심리사회적 가정환경은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감소시켜서 부모-자녀의 유대를 강화시켜, 결국 분노와 같은 충동적인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학교폭력을 억제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Warr(1993; 문성호, 2002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과 비행친구와의 관계형성이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김명자(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친밀도와 부모의 감독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차단시켜서 간접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자녀간의 유대감이 강할수록 청소년들이 부모가 승인하지 않는 비행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

려는 동기가 억제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높은 수준의 가정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은 청소년의 분노조절력을 더욱 높일 것이다.

가설 2: 높은 수준의 가정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은 청소년들의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더욱 억제할 것이다.

가설 3: 높은 수준의 분노조절력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더욱 억제할 것이다.

심리사회적 학교환경 요인, 분노조절, 비행친구와의 접촉, 학교폭력 가해행동간의 관계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사회화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때문에 학교환경이 가장 중요한 사회환경으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심리적 발달에 학교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사회통제이론에서는 청소년이 그들의 가정, 학교, 친구와의 유대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본다. 애착은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견해와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한도와 그리고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관심을 말한다(박기민, 2000). 학교나 교사에 대한 애착은 학생들에게 동조에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비행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즉 학교에서의 실패와 교사에 대한 애착의 결여는 비행에 의해서 상실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Jang(1991; 임영식, 1998에서 재인용)은 학교와 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

고,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학생일수록 비행과 폭력행동에 더 많이 관련된다고 보았다.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 학교에 대한 만족, 학교에 대한 감정적 결속, 학교와의 동일시가 비행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Hirsch, 1969; Kelly & Pink, 1973; Wiatrowski, et al., 1981; Kumpfer & Turner, 1991; Karatzias, Power & Swanson, 2002; 김명자, 2002에서 재인용).

학교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청소년은 분노와 좌절을 느끼며 주위동료나 교사들로부터 무시되기 때문에 이들은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이나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iegel & Senna, 1995; 임영식, 1998에서 재인용).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학업적 대처, 관여, 자기조절을 잘하였으며(Ryan, Stiller, & Lynch, 1994; 문은식, 2002에서 재인용), 교사에 대한 애착과 학교에 대한 애착이 직접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억제하기 보다는 분노를 차단하고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명자, 2002). 그러므로 청소년 가정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은 직접 학교폭력행동을 억제하기 보다는 정서조절력을 향상시켜 간접적으로 학교폭력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이므로 비슷한 연령의 또래 집단은 청소년기 행동의 기준과 모범이 되고 또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인간의 사회 및 성격발달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은 Sutherland에 의해서 창안된 이론으로서 인간의 행동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보며 모든 행동은 학습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비행도 학습된 것으로 보며 비행의 학습은 초기에는 사

소한 비형식적인 집단에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집단적 경험의 행태로 발전해 간다고 보았다(정선경, 1998). 즉 청소년들이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될지, 아니면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탈적 행동 혹은 비행을 저지르게 될 지의 여부는 그들이 사귀는 친구 혹은 집단이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가치체계와 행동방식을 수용하는 부류인지 아니면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탈적인 가치와 행동방식을 택하고 있는 부류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고 본다(Kearl & Gordon, 1992; 임영식, 1998에서 재인용). 많은 연구들에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학교폭력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병호, 1999; 임영식, 1998; 이은미, 2000; Lee & Kim, 2003).

Hawkins와 Lisner(1987; 신성원, 1999에서 재인용)는 낮은 학업성취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애착을 감소시키며 교육 목표에 대한 관여와 열망수준을 낮게 하여 학교에 대한 애착이 낮아져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증가시켜서 결국 비행행동을 유발하는 인과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교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은 직접적으로 학교폭력행동을 유발하기 보다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감소시켜 간접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높은 수준의 학교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은 청소년들의 분노조절력을 더욱 높일 것이다.

가설 5: 높은 수준의 학교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은 청소년들의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

가설 6: 높은 수준의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더 유발할 것이다.

심리사회적 지역사회환경 요인, 분노조절, 비행친구와의 접촉, 학교폭력 가해행동간의 관계

학교폭력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여러 가지 유해한 사회적 환경요인이다. 사회 곳곳의 다양한 유해업소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2)과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자극적인 폭력물은 청소년들의 공격적 욕구를 자극시켜(김현실, 1996; Bushman & Anderson, 2001; Huesmann, Moise-Titus, Podolski, & Eron, 2003; Paik & Comstock, 1994)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Lee & Kim, 2003). 그런데 유해업소나 유해환경과 같은 유흥업소 중심의 물리적 유해환경은 가정이나 친구와 같은 사회적 환경과 비행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김준호, 1996) 물리적 환경보다는 사회적 환경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출입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해업소 자체의 물리적 환경 때문이 아니라 가정, 학교, 교우관계 문제와 같은 사회적 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 접촉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폭력요인과 학교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폭력물 시청으로 인한 정보환경의 유해성만을 지역사회 의 폭력유발적 환경으로 선정하였다.

대중매체의 빈번한 폭력적 노출은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폭력에 대한 감정 반응을 둔화시켜서(Straus, 1994; 임영식, 1998에서 재인용) 욕구불만의 해소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동기를 조장하고 반사회적 공격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폭력매체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하

는 것은 둔감화 이론(desensitization theory)과 사회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둔감화 이론에서는 폭력매체에 대한 노출이 실생활에서의 폭력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어 폭력가해자에 대한 동정심을 감소시켜서(Mullim & Linz, 1995) 결국 공격행동을 증가시키는 것(Renfrew, 1997)으로 보고 있다.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3)에서는 폭력매체에 대한 노출이 관찰학습과 강화를 통하여 공격행동을 학습하도록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폭력매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폭력행위를 관찰하고 모방하여 새로운 폭력행위의 기술을 습득하고, 폭력행동에 대한 억제력이 감퇴되어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없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공격행동을 모방하여 정적인 강화를 받게 되면 그 행동은 더욱 가속화되어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폭력행동을 학습하게 된다(김병호, 1999).

폭력매체 노출이 비행친구와 접촉을 증가시키는 것은 하위문화이론(subculture theory)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비행을 특정 하위문화에 대한 순응 및 접촉기회의 결과로 설명한다(박기민, 2000). 즉 같은 행동이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며, 합리화 및 정당화되는 가치 및 규범이 존재한다고 본다(김준호, 1992). 그러므로 폭력매체에 대한 빈번한 노출은 가해자가 속한 폭력문화에 접촉하는 기회를 주게 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문화에 순응하도록 하여 결국 폭력 가해집단의 가치를 수용하여 이들의 폭력행동을 합리화, 정당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폭력매체에 대한 노출은 폭력집단의 가치를 수용하여 폭력집단의 하위문화를 학습하도록 하여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비행위험을 증가시키고(김희화, 2001) 학교폭력을 유발한다(이훈구, 2001; 임영식, 1998, Lee & Kim, 2003).

Lee와 Kim(2003)의 연구에서는 폭력매체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하여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폭력매체에 대한 노출은 직접 학교폭력 가해행동 유발하기도 하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의 폭력유발적 심리사회적 환경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더욱 유발할 것이다.

가설 8: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의 폭력유발적 심리사회적 환경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더욱 유발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가설에 근거한 가설적 모형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방 법

조사대상자 및 조사과정

G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 2개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학교별로 남녀 비율을 비슷하게 선정하여 남학생 5학급과 여학생 5학급 350여명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수거한 350부중 응답에 누락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여겨지는 11부를 제외한 339부를 대상으로 다변량 정규분포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응답자들을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28명을 제외시켜서 최종적으로 311명(남학생 156, 여학생 155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 설문지의 측정변인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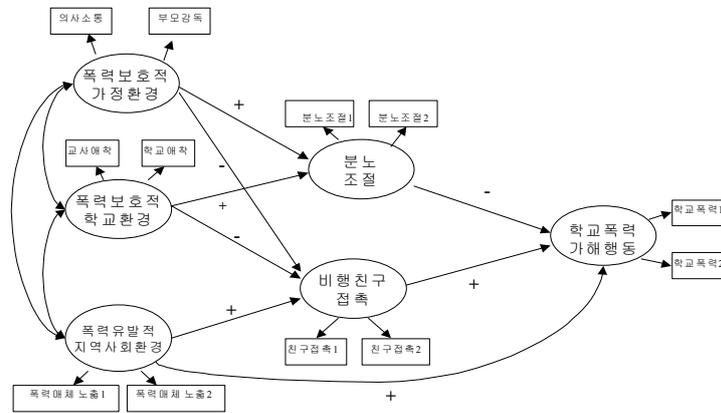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 가해행동간의 가설적 모형

그림 1.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 가해행동간의 가설적 모형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 교사에 대한 애착, 학교에 대한 애착, 폭력매체 노출, 분노조절 전략, 비행친구와의 접촉, 학교폭력 가해경험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이 개발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 .83$ 이었다.

부모감독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이 개발한 부모감독 척도 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감독이 잘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 .84$ 이었다.

교사에착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이 개발한 2문항과 Riner(1998)가 개발한 2문항을 김명자(2002)가 종합하여 수정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에 대한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 .87$ 이었다.

학교애착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이 개발한 학교에 대한 애착 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 대한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 .91$ 이었다.

폭력매체 노출

김현실(1996)이 개발한 11문항 중 폭력에 관련된 폭력매체 노출도 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매체에 대한 노출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 .77$ 이었다.

분노조절

Riner(1998)가 개발하고 김명자(2002)가 수정하여 사용한 분노조절전략 척도 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분노조절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 .63$ 이었다.

비행친구 접촉

김병호(1999)가 개발한 비행친구와의 접촉 척도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없다”(1점), “1/4정도”(2점), “1/2정도”(3점), “3/4이상”(4점)의 4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 .85$ 이었다.

학교폭력 가해경험

Olweus(1986), 김준호(1997), 이상균(1999)이 개발

한 학교폭력 가해경험 척도를 김명자(2002)가 수정하여 사용한 11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없다”(1점), “1-2번”(2점), “3-4번”(3점), “5번 이상”(4점)의 4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 .85$ 이었다.

자료분석

청소년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분노조절, 비행친구와의 접촉 및 학교폭력 가해행동 간의 가설적 관계 모형을 설정하여 LISREL8(Joreskog & Sorbom, 1993)을 통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하였다. 비실험적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의 양상을 설명하고자 할 때 종래의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에 비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활용하여 이론을 검증하고 개발할 수 있으며(이순목, 1990), 측정오차의 효과를 조정하고 이론적 개념들 간의 관계를 추정 가능하도록 하고(Kline, 1998; Raykov, Tomer, & Nesselroade, 1991),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Francis, 1988) 이론검증과 인과적 모형검증을 위한 중요한 다변량분석 기법인(Raykov et al, 1991) 공변량 구조분석을 사용하였다.

공변량 모형들의 부합도를 측정하는 단일지수에 대한 견해가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전반적인 부합지수에 관한 다중지표를 제시하기를 권고하고 있다(Bollen, 1989; Marsh, Balla, & McDonald, 1988; Tanaka, 1993). χ^2 값의 부합도가 표본의 크기에 심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료의 부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GFI(Goodness of Fit Index, Joreskog & Sorbom, 1981; Tanaka & Huba, 1985, 1989),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Joreskog & Sorbom, 1993), NNFI

(Non-Normed-Fit Index, Marsh, Balla, & McDonald, 1988), CFI(Comparative-Fit-Index, Bentler, 1989, 199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teiger, 1990), χ^2 , χ^2 에 대한 p 값, 표준화 잔차의 비율 등 다른 다중 통계치들이 사용되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합도 지수들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지수들이 .90을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Maruyama, 1998) 일반적인 기준과 RMSEA 지수는 .05이하가 바람직하지만 .08이하까지는 수용가능하다(Browne & Cudeck, 1993)는 기준에서 전반적인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다변량 극단치를 SAS의 R-student, Cook's Distance, Dffits, Dfbetas 통계량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28명의 자료를 제외시켰다. 공변량 구조모형의 자료에서 편포도(skewness) > | 3.0 |, 첨도(kurtosis) > | 10.0 |인 경우 정규분포를 심하게 벗어난 것으로 여겨진다(Kline, 1998). 그런데 일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본 연구의 모든 척도들 중 학교폭력(편포도 = 1.93, 첨도 = 3.98)만을 제외하고는 첨도와 편포도가 1을 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을 준거변인으로 한 다변량 정규분포를 검증한 결과 편포도 = .93, 첨도 = 1.89로서 심하게 다변량 정규분포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료가 정규분포가정의 위반시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Anderson & Gerbing, 1984; Chou, Bentler, & Satorra, 1991; Hu, Bentler, & Kano, 1992; Muthen & Kaplan, 1985, 1992)에서 최대가능법이 다변량정규분포를 심하게 벗어나지 않을 시에는 정규분포의 가정의 위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어서 미지수 추정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서 최대가능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으면 분석에서 제외하는 listwise(casewise) 제거법을 이용하여 공변량행렬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횡단적 자료의 특성상 이론적으로 가능한 다른 대안 모형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MacCallum, Wegener, Uchini, & Fabrigar, 1993), 최종적으로 설정된 공변량 구조모형과 다른 경합 모형들과의 부합도가 비교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설정 모형은 가정과 학교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이 분노조절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매개로 삼아서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간접적으로 감소시키고, 지역사회의 폭력유발적 심리사회적 환경인 폭력매체 노출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매개로 삼아서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간접적으로 유발하기도 하고 직접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모형이다. 경합모형으로서 가정과 학교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이 직접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직접모형, 본 연구의 설정모형에서 지역사회의 폭력유발적 심리사회적 환경이 직접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경로를 삭제하고 지역사회의 폭력유발적 심리사회적 환경이 분노조절을 통하여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 완전매개모형, 가정과 학교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이 직간접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행동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의 폭력유발적 심리사회적 환경이 직간접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완전부분매개모형의 경합모형들을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가정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의 측정변수들은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 측정문항들을, 학교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의 측정변수들을 교사와의 애착, 학교에 대한 애착 측정문항들을 합한 값을 이용하였다. 측정변수로서 개별적 문항들을 사용하게 되면 공변량 구조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최대가능법의 가정인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

고(Russel, Kahn, & Altmaier, 1998), 표집이 모수추정수의 5배 이상이 되어야만 최대가능법에서 안정된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Bentler & Chou, 1988). 따라서 폭력매체 노출, 분노조절, 비행친구와의 접촉, 학교폭력 가해행동 각 측정치들을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과 가장 낮은 문항을 합하고 그 다음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을 합하여 각 변수당 요인부하량이 비슷한 2개의 측정변수들을 구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Bruch, Berko & Haase, 1998; Nunnally, 1978; Russel et al, 1998). 최종적으로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 분노조절, 비행친구와의 접촉, 학교폭력 가해행동 각 2개씩의 척도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결 과

측정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되었듯이 학교폭력 가해행동 측정변수들이 의사소통, 부모감독, 교사에착, 분노조절 측정변수들과는 정적인 상관을 폭력매체 노출과 비행친구 접촉 측정변수들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분석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폭력보호적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이 분노조절과 정적상관을 비행친구 접촉과 학교폭력 가해행동과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폭력유발적 지역사회환경은 분노조절과 부적인 상관을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구조경로 모형에

표 1.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listwise deletion, $N = 311$)

측정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의사소통	—											
2. 부모감독	.48***	—										
3. 교사에착	.35***	.28***	—									
4. 학교애착	.34***	.26***	.50***	—								
5. 폭력매체노출1	-.11*	-.09	-.18**	-.10	—							
6. 폭력매체노출2	-.09	-.08	-.21**	-.18***	.77***	—						
7. 분노조절1	.33***	.24***	.18**	.31***	-.15**	-.15**	—					
8. 분노조절2	.40***	.35***	.20***	.37***	-.07	-.12*	.64***	—				
9. 비행친구접촉1	-.04	-.04	-.13*	-.16***	.31***	.35***	-.12*	-.09	—			
10. 비행친구접촉2	-.11*	-.10	-.19***	-.21***	.30***	.31***	-.16***	-.12*	.80***	—		
11. 학교폭력행동1	-.05	-.10	-.14**	-.16***	.24***	.29**	-.16***	-.18***	.49***	.44***	—	
12. 학교폭력행동2	-.13*	-.15**	-.19***	-.20***	.24***	.28***	-.18***	-.23***	.48***	.43***	.81***	—
<i>M</i>	9.17	8.98	7.78	8.04	2.58	2.32	7.51	7.81	3.11	3.55	1.99	1.52
<i>SD</i>	3.50	3.59	3.57	3.90	2.46	2.13	1.93	2.02	2.71	3.02	2.30	2.16

* $p < .10$. ** $p < .05$. *** $p < .01$.

대한 부합도가 표 3에, 표준화된 추정치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설정모형이 매우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43, N = 311) = 46.01, p = .349$; GFI = .976; NNFI = .997; CFI = .998; RMSEA = .015. 그리고 2.56보다 더 큰 표준화된 잔차의 수가 5%이내로서(66개중 1개) 매우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가정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이 분노조절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beta = .47, t = 3.75, p < .001$), 학교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이 분노조절력에 정적으로($\beta = .19, t = 1.74, p < .05$)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 t = -1.94, p < .05$).

표 2.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listwise deletion, $N = 311$)

변인	1	2	3	4	5	6
1. 폭력보호적 가정환경	—	.42	-.12	.44	-.09	-.13
2. 폭력보호적 학교환경		—	-.21	.34	-.21	-.21
3. 폭력유발적 지역사회환경			—	-.14	.36	.29
4. 분노조절				—	-.13	-.20
5. 비행친구접촉					—	.51
6. 학교폭력 가해행동						—

주. 모든 변인들간의 상관이 * $p < .05$ 에서 유의미함.

표 3. 설정모형과 경합모형의 부합도(listwise deletion, N = 311)

모형	χ^2	df	p	GFI	NNFI	CFI	RMSEA
설정모형	46.01	43	.349	.976	.997	.998	.015
직접모형	76.27	43	.001	.961	.965	.978	.050
(가정환경→학교폭력, 학교환경→학교폭력 경로 추가, 분노조절→학교폭력, 친구접촉→학교폭력 경로 삭제)							
완전매개모형	49.18	43	.239	.974	.994	.996	.022
(지역사회환경→분노조절 경로 추가, 지역사회환경→학교폭력 경로 삭제)							
완전부분매개모형	45.54	40	.252	.976	.994	.997	.021
(가정환경→학교폭력, 학교환경→학교폭력, 지역사회환경→분노조절 경로 추가)							

주. GFI = goodness-of-fit index; NNFI = non-normed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p < .05$. ** $p < .0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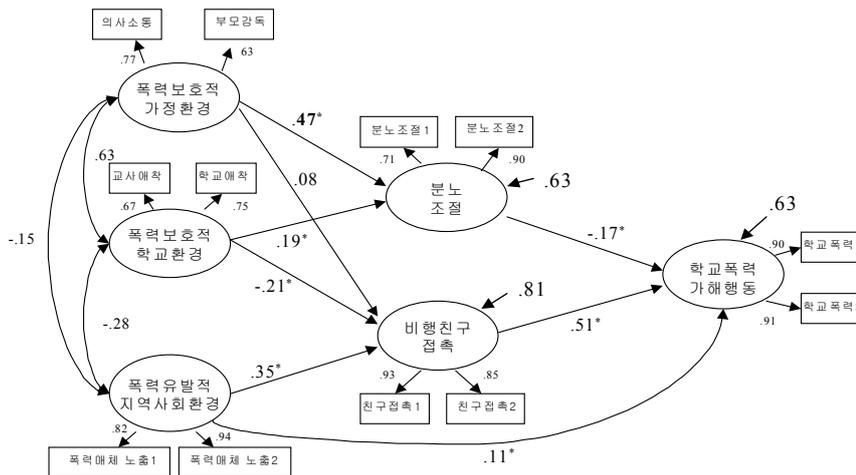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 가해행동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 $p < .05$. 일방검증

설정모형에 제시된 8가지의 가설적 관계 중 7가지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가지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폭력유발적 심리 사회적 환경이 비행친구와의 접촉($\beta = .35, t = 5.45, p < .001$)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 t = 1.83, p < .05$). 그리고 이들의 분노조절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부적인 영향을($\beta = -.17, t = -3.09, p < .01$),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1, t = 7.69, p < .001$).

그러나 청소년들의 가정의 폭력보호적 심리 사회적 환경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8, t = .80, p > .05$).

본 연구의 가설적 구조모형이 분노조절의 37%, 비행친구 접촉의 19%,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른 변인들에 의해서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제외한 분노조절력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본 연구의 가설적 구조모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비교

본 연구의 설정모형과 직접모형, 완전매개모형, 완전부분매개모형들에 대한 부합도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설정모형이 직접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에 비해서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전부분매개 모형이 본 연구의 설정모형보다 부합도가 높지 않아서($\chi^2(3, N = 311) = .47, ns$) 본 연구의 설정모형이 더 간명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정모형이 다른 경합모형들에 비해서 더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분노조절과 비행친구와의 접촉변인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환경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한 매개모형들(설정모형, 완전매개모형, 완전부분매개모형)과 매개효과를 배제한 직접모형을 비교하면 직접모형이 설정모형, 완전매개모형에 비해서 부합도가 낮고, 완전부분매개모형에 비해서도 부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3, N = 311) = 30.73, p < .001$). 따라서 분노조절과 비행친구와의 접촉변인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환경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한 매개모형들(설정모형, 완전매개모형, 완전부분매개모형)과 매개효과를 배제한 직접모형을 비교하면 직접모형이 설정모형, 완전매개모형에 비해서 부합도가 낮고, 완전부분매개모형에 비해서도 부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모형이 직접모형에 비해서 더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효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심리사회적 환경변인들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각 변인들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각 변인의 직접효과는 총효과 중

표 4. 가정, 학교, 지역사회환경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표준화된 간접효과와 총효과

변 인	간접효과	총효과
가정환경	-.04	-.04
학교환경	-.14*	-.14*
지역사회환경	.18*	.29*

* $p < .05$.

에서 모형에서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부분이며, 각 변인의 간접효과는 총효과 중에서 모형에서 다른 변인들에 의해서 매개되는 부분이다.

본 설정모형내에서 지역사회환경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환경인 폭력매체 노출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하여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35×.51) 직접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정모형내에서 학교환경은 분노조절 (.19×-.17)와 비행친구접촉(-.21×.51)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환경은 분노조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감소시키지만(.47×-.17)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증가시켜서(.08×.51)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상쇄되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요인들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어떤 심리적 기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설적인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소년들 가정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요인으로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을, 학교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요인으로서 교사에 대한 애착, 학교에 대한 애착을, 지역의 폭력유발적 심리사회적 환경요인으로서 매체폭력에 대한 노출을 설정하여,

이들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심리사회적 환경요인들이 분노조절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하여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8개의 가설경로 중 7개의 경로(폭력보호적 가정환경→분노조절, 폭력보호적 학교환경→분노조절, 폭력보호적 학교환경→비행친구접촉, 폭력유발적 지역사회환경→비행친구접촉, 폭력유발적 지역사회환경→학교폭력 가해행동, 분노조절→학교폭력 가해행동, 비행친구 접촉→학교폭력 가해행동)가 지지되었고, 1개의 경로(폭력보호적 가정환경→비행친구와의 접촉)가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주요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 학교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요인이 학교폭력가해 행동을 억제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유대가 약해졌을 때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사회통제이론을 지지하며, 가정과 학교환경의 보호적 요인들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 결과들(김명자, 2002; 이신옥, 2003; Farrington & Loeber, 2000; Gorman-Smith, Tolan & Zelli, 1996; Hirsch, 1969; Karatzias, Power & Swanson, 2002; Kelly & Pink, 1973; Kumpfer & Turner, 1991; Thornberry, Huizinga & Loeber, 1995; Wiatrowski, et al., 1981; 김명자, 2002에서 재인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교사와 학교지도자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애정을 가지고 지도할 때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족제도가 핵가족제도로 변화하면서 자녀양육의 경험이 많고 자녀와 부모간의 갈등에

서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부모들의 역할이 감소되고(신명희, 2002), 청소년기의 자녀는 부모간의 대화단절 및 갈등의 증가되는 시기로서 올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자녀발달단계에 따른 이해, 자녀와의 의사소통이나 관계개선을 위한 부모역할훈련(이지연, 2001)을 통하여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학교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로서 학교폭력 예방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학교는 교육인구의 양적 팽창과 교사 대 학생수의 불균형, 그로 인한 전인교육의 부재, 교사권위의 상대적 추락과 사제지간의 대화단절,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 등의 문제로 인하여(변보기, 강석기, 2002)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인간관계를 증진시키고 학생들과 학교간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개입방안들의 실시를 통하여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가정과 학교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이 직접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억제하기 보다는 분노조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이 정서를 올바르게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본 연구들(이시형, 1997; Szurek, 1942; Quay, 1964; 변보기, 강석기, 2002에서 재인용) 및 김명자(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경우에 가정과 학교의 심리사회적 보호환경이 청소년의 정서조절력을 향상시켜서 간접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정

서관리능력이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여겨진다. 즉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능력의 신장을 통해서 분노, 불안, 죄책감 등의 개별 정서를 다룰 수 있는데(Dunlop, 1984; Mayer & Salovey, 1990, 1993; Parkinson, 1990; 강신덕, 1997에서 재인용), 대부분 인지적 재구조화, 문제해결 훈련, 친사회적 기술훈련 등으로 이루어진 분노 조절훈련이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권영덕, 2002; 김성혜, 1999)은 분노조절훈련이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상담적 개입전략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기관에 의뢰하거나 상담교사를 통하여 정서관리능력을 신장시키는 다양한 집단상담을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실시하여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교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에 대한 애착과 학교에 대한 애착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감소시켜서 간접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들(김명자, 2002; Hawkins & Lisner, 1987; 신성원, 1999에서 재인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가 청소년들을 애정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지도하여 학생들과 인간적인 유대감이 형성될 때, 청소년들이 비행친구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직접적으로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김병호, 1999; 문성호, 2002; 임영식, 1998; 이은미, 2000; Lee & Kim, 2003)과 일치하며 반사회적 친구와의 교제가 비행을 유발한다고 보는 차별접촉이론을 지지한다. 청소년기가 되면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소속

되려는 욕구가 강하여 부모나 가족보다 친구 및 또래집단의 중요성의 영향이 증가하여(Steinberg, 1993; 임영식, 1998에서 재인용) 또래집단의 동조 압력을 받기 쉬운데,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또래들과 어울리는 청소년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또래들과 어울렸을 때에 비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Allen, Weissberg & Hawkins, 1989; 조성호, 2000에서 재인용), 또래 중재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공격행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Cunningham et al., 1998; Naylor & Cowie, 1999) 학교당국과 교사들은 각 학급마다 또래상당자들을 양성하여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또래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폭력매체 노출은 직접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할 뿐 아니라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매체 노출이 직접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김현실, 1996; Bushman & Anderson, 2001; Huesmann et al, 2003; Paik & Comstock, 1994)과 일치하며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매체 노출이 현실 생활에서의 폭력행동에 대하여 감정반응을 둔화시켜서 폭력을 행사하려는 동기를 조장하여 학교폭력 행동을 유발한다는 둔감화 이론과 폭력매체 노출이 관찰학습과 강화를 통하여 공격행동을 학습한다는 사회학습이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폭력매체 노출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하여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Lee와 Kim(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폭력매체 노출은 폭

력적 친구와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결국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 기제는 폭력매체에 대한 노출이 폭력집단의 가치를 수용하고 학습하여 폭력집단과 어울리게 되어 결국은 폭력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하위문화이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폭력매체 노출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미쳐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29%나 예측하는 매우 강력한 유발요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영화, TV, 비디오, 컴퓨터 등의 폭력매체에서 폭력장면을 많이 접할 경우 폭력행동을 학습하고 폭력의 결과에 둔감해지고 폭력집단과의 접촉을 증가시켜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스크의 폭력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요청된다.

다섯째, 가정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억제하는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사회화 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교사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교에서 습득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감소되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어서 결국은 자녀의 학교에서의 교우관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여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정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부모의 감독, 학교의 폭력보호적 심리사회적 환경인 교사에 대한 애착, 학교에 대한 애착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억제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지역사회의 폭력유발적 심리사회적 환경요인인 폭력매체 노출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유발요인으로서

작용을 하며, 이들 억제요인들과 유발요인이 청소년의 분노조절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청소년들의 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폭력이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결과 발생하는 심리적 기제와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이 개인수준과 사회환경적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생들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다른 연령대에 일반화시키는 데는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생들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유발요인으로서 폭력매체 노출을 억제요인으로서 자녀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 교사와의 애착, 학교에 대한 애착을 가정하였지만, 학교폭력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요인들(예, 가정폭력 경험, 교사의 체벌, 자존감 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중요한 억제요인들과 유발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부모의 감독, 학교의 심리사회적 환경인 교사에 대한 애착, 학교에 대한 애착을 학교폭력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요인으로서 가정하였지만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위험요인들의 효과를 완화시키는 조절변인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자료를 통하여 분

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횡단적 자료를 통하여 매개모형이 가정하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추론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통한 검증을 통하여 보다 정밀한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이 이루어져야 한다(Cole & Maxwell, 2003).

참고문헌

- 강신덕 (1997). 비행청소년 분노조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청소년상담연구*, 5(1), 81-143.
- 권영덕 (2002).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축구부원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섭, 민수홍 (1996). 개인의 자기 통제력이 범 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명자 (2002). 청소년의 학교폭력행위 예측모형.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병호 (1999). 청소년 학교폭력의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 김선희 (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혜 (1999). 분노조절 훈련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만 (2001).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1992). 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및 태도.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1996) 학교주변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 사회과학연구, 3. 덕성여자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준호 (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1998). 한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피해와 가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1), 109-131,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 김현실 (1996). 폭력매체에 의한 비행행동의 구조모형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화 (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감독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133-153.
- 문성호 (2002). 청소년 폭력과 비폭력 비행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9(3), 145-162.
- 문은식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하영 (1992).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3(1), 112-124.
- 박경아 (2003).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경숙, 손희곤, 손혜정 (1998). 학생의 왕따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98-1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기민 (2000). 우리나라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연구: 중·고생의 학교폭력실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박소춘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자아개념 및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변보기, 강석기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적대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68-291
- 신명희 (2002). 한국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과 교육적 대책. 한·일교육문제 세미나 1권. 서울: 연세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 신성원 (1999). 학교폭력의 실태, 발생원인 및 대처방안. 경찰행정학보, 3, 42-84.
- 이미경 (1995). 충동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목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이시형 (1997). 학교폭력 실태와 그 예방. 대한의사협회지, 40(10), 1268-1273.
- 이신욱 (2003).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미 (2000). 청소년 학교폭력의 요인연구.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강은희 (2003). 청소년들의 지배성, 우월감, 자기찬미, 신뢰결핍과 집단따돌림 행동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23-353.
- 이지연 (2001). 청소년 자녀의 양육태도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훈구 (2001). 교실이야기 2: 때리는 아이들, 맞는 아이들. 서울: 법문사.
- 임순홍 (2000).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 학위논문.
- 임영식 (199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3), 1-26.
- 정선경 (1998). 청소년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호 (2000).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화: 통합적 접근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47-67.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학교폭력의 현황과 대책.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한울림.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2). 2001 학교폭력 실태조사.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준상 (1998). 청소년문제.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4). The effects of sampling error on covariance, improper solutions, and goodness-of-fit indices for maximum likelihoo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49, 155-173.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entler, P. M. (1989). *EQS structural equations program manual*. Los Angeles: BMDP Statistical Software.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entler, P. M., & Chou, C. (1998).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In J. S. Long (Ed.), *Common problems/proper solutions: Avoiding error in quantitative research* (pp. 161-192). Newbury Park, CA: Sage.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Wiley.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ruch, M. A., Berko, E. H., & Haase, R. F. (1998). Shyness, masculine ideology, physical attractiveness, and emotional inexpressiveness: Testing a mediational model of men's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84-97.
- Bushman, B. J., & Anderson, C. A. (2001). Media violence and the American public: Scientific facts versus media misinformation. *American Psychologist*, 56(6/7), 477-489.
- Chou, C.-P., & Bentler, P. M., & Satorra, A. (1991). Scaled test statistics and robust standard errors for non-normal data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A Monte Carlo study.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44, 347-357.
- Cole, D. A., & Maxwell, S. E. (2003). Testing mediational models with longitudinal data questions and tips in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4), 558-577.
- Cunningham, C., Cunningham, L., Martorelli, V., Tran, A., Young, J., & Zacharias, R. (1998). The effect of primary division, student-mediated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on

- playground aggress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 653-662.
- Francis, D. J. (1988). An introduction to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Neuropsychology*, 10, 623-639.
- Huesmann, L. R. Moise-Titus, J., Podolski, C. L., & Eron, L. D. (2003).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children's exposure to TV violence and their aggressive and violent behavior in young adulthood: 1977-1992.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201-221.
- Jöreskog, K. G., & Sörbom, D. (1981). *LISREL V: Analysis of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 by the method of maximum likelihood*. Chicago: National Educational Resources.
- Jöreskog, K. G., & Sörbom, D. (1993).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 Hu, L.-T., Bentler, P. M., & Kano, Y. (1992). Can test statistic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be trusted? *Psychological Bulletin*, 112, 351-362.
- Kaltiala-Heino, R., Rimpela, M., Rantanen, P., & Rimpela, A. (2000). Bullying at school: An indicator of adolescents at risk for mental disorders. *Journal of Adolescence*, 23, 661-674.
- Karatzias, K. G., Power, K. G., & Swanson, V. (2002). Bullying and victimisation in Scottish secondary schools: Same or separate entities? *Aggressive Behavior*, 28, 45-61.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Lee, E. H., & Kim, M. J. (2003). Media violence, anger, contact with delinquent friends, and bullying at school in Korea. *The 4th Asia-South Pacific Association of Sport Psychology International Congress programme & proceedings*, pp. 53-57. July 1, 2003. Seoul: Kookmin University.
- MacCallum, R. C., Wegener, D. T., Uchino, B. N., & Fabrigar, L. R. (1993). The problem of equivalent models in applications of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 185-199.
- Marsh, H. W., Balla, J. R., & McDonald, R. P. (1988). Goodness-of-fit indexes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effect of sample size. *Psychological Bulletin*, 103, 391-411.
- Maruyama, G. M. (1998). *Basic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Mullin, C. R., & Linz, D. (1995). Desensitization and resensitization to violence against women: Effects of exposure to sexually violent film on judgments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449-459.
- Muthén, B., & Kaplan, D. (1985). A comparison of methodologies for the factor analysis of non-normal Likert variable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38, 171-189.
- Muthén, B., & Kaplan, D. (1992). A comparison of some methodologies for the factor analysis of non-normal Likert variables: A note on the size of the model.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45, 19-30.
- Naylor, P., & Cowie, H. (1999). The effectiveness of peer support systems in challenging school bullying: the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of teachers and pupils. *Journal of Adolescence*, 22, 467-479.
- Nunnally, J.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Olweus, D. (1986). *The Olweus Bully/Victim Questionnaire*. Mimeco. Bergen, Norway: University of Bergen.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Black-well.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5, 1171-1190.
- Paik, H., & Comstock, G. (1994). The effects of television violence on antisocial behavior: A meta-analysis. *Communication Research*, 21, 516-546.
- Raykov, T., Tomer, A., & Nesselroade, J. R. (1991). Repor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in Psychology and Aging: Some proposed guidelines. *Psychology and Aging*, 6(4), 499-503.
- Renfrew, J. (1997). *Aggression and its causes: A biopsychosocial approach*. New York: Oxford.
- Riner, M. E. (1998). *Social ecology model of adolescent interpersonal violence preven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ndiana.
- Russell, D. W., Kahn, H.,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 Tanaka, J. S. (1993). Multifaceted conceptions of fit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0-39). Newbury Park, CA: Sage.
- Tanaka, J. S., & Huba, G. J. (1985). A fit index for covariance structural models under arbitrary GLS estimation.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42, 233-239.
- Tanaka, J. S., & Huba, G. J. (1989). A general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s under arbitrary GLS estimation.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42, 233-239.

원고접수일 : 2003. 9. 29

수정원고접수일 : 2003. 11. 26

게재결정일 : 2003. 11. 28

Relationships among Socio-Environmental School Violence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and Bullying at School: Testing a Mediational Model of Anger Control and Contact with Delinquent Friends

Eun-Hee Lee Su-Ja Gong Chung-Sook Lee
Konyang University Chosun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a model of the mediating influences of anger-control and contact with delinquent friends in the relationship among socio-environmental school violence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and bullying at school. Data came from 311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Gwangju City. Results from the structural analysis indicated that, as hypothesized, anger-control mediated the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al protective factors (communication with parents, parents' supervision) on bullying at school.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environmental violence protective factors (attachment to teacher, attachment to school) and bullying at school is explained by school environmental violence protective factor relations with two intervening constructs, anger-control and contact with delinquent friends. Furthermore, community environmental risk factor (exposure to media violence) had direct effect on bullying at school, as well as contact with delinquent friend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media violence and bullying at school. In addition 3 alternative models were estimated. The results of the tests of the 3 alternative models were not supported by the data, further sustaining the validity of the hypothesized model. Lastl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exposure to media violence, bullying at school, anger-control, contact with delinquent friends, attachment to teacher, attachment to school